

“작품상은 ‘라라랜드’...아니 ‘문라이트’” 사상 초유 번복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라라랜드 여우주연상 등 6관왕
데이미언 셔젤 최연소 감독상
흑인배우가 남·여조연상 수상

아카데미상수상자·수상작		
제 89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문라이트’	문장상
감독상	데이미언 셔젤 (라라랜드)	‘수어시이드스퀘트’
남우주연상	케이사이델렉 (맨체스터 바이 더 씨)	시각효과상
여우주연상	에마 스톤 (라라랜드)	‘장글북’
각본상	‘맨체스터 바이더 씨’	음악상
각색상	‘문라이트’	‘라라랜드’
남우조연상	마하설라 알리 (문라이트)	주제가상
여우조연상	비올라 데이비스 (펜스)	‘시티오브스타즈’(라라랜드)
편집상	‘헝스고지’	음향편집상
촬영상	‘라라랜드’	‘컨택트’
미술상	‘라라랜드’	음향효과상
의상상	‘라라랜드’	‘헝스고지’
신비한 동물사전	‘신비한 동물사전’	외국어영화상
		‘자일즈맨’
		장편애니메이션상
		‘주토피아’
		단편애니메이션상
		‘피이피’
		단편영화상
		‘싱’
		장편다큐멘터리상
		‘오제마:메이언이메리카’
		단편다큐멘터리상
		‘더화이트랩펫츠’

영화 ‘문라이트’가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3개상을 받았다.

‘라라랜드’도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 6관왕에 올랐다.

26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문라이트’는 작품상과 각색상, 남우조연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문라이트’는 흑인인 배리 켄진스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흑인 감독의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은 스티브 맥퀸 감독의 ‘노에 12년’(2014)에 이어 두 번째다.

‘문라이트’와 ‘노에 12년’ 모두 배우 브래드 피트가 제작자로 나선 작품으로, 브래드 피트는 제작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문라이트’는 흑인 동성애자 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다양성과 차별의 문제를 화두로 던졌으로써 최근 인종



2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89회 아카데미영화상 시상식에서 주·조연상 수상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우조연상 마하설라 알리(‘문라이트’), 여우주연상 에마 스톤(‘라라랜드’), 여우조연상 비올라 데이비스(‘펜스’), 남우조연상 케이사이델렉(‘맨체스터 바이 더 씨’).

주의 및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관심과 반 트럼프 정서가 높아진 미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수상자가 잘못 발표되는 그야말로 ‘영화 같은’ 소동이 벌어졌다. 마지막 수상자인 작품상 발표자로 나선 원로배우 페이 터너웨이와 워런 비티가 수상작으로 ‘라라랜드’를 호명하고, ‘라라랜드’ 제작진이 수상소감까지 발표했으나 사회자 지미 키멀이 황급히 나서 다시 봉투를 건네면서 ‘문라이트’로 수상작을 정정했다.

‘라라랜드’는 감독상, 여우주연상, 미술상, 촬영상, 음악상, 주제가상 등 6개 상을 가져갔다. ‘라라랜드’는 13개 부문 14개 후보에 올라 역대 최대 수상 기록(11관왕)을 세운 ‘벤허’, ‘타이타닉’,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의 아성을 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으나 6관왕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라라랜드’를 연출한 데이미언 셔젤(32

감독은 아카데미 사상 최연소 감독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과 감독상 등을 두고 ‘라라랜드’와 ‘문라이트’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됐으나, 아카데미는 두 작품에 상을 골고루 나눠줬다.

여느 해보다 수작들이 후보에 많이 올랐던 시상식에서 나머지 작품들도 골고루 상을 가져갔다. 맷 데이먼이 제작한 ‘맨체스터 바이 더 씨’는 각본상과 남우주연상 2개를 받았고, 멜 깁슨 감독이 10년 만에 연출한 ‘헝스고지’는 음향믹싱상과 편집상 2개를 쟁겼다. 드니 빌뇌브 감독의 ‘컨택트’는 음향편집상을 받았다. 아카데미가 실화 영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화 소재 영화인 ‘히든 피겨스’와 ‘라이언’은 한 개도 수상하지 못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지난 2년간 ‘백인들의 잔치’

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올해는 2명의 흑인 배우 수상자를 냈다. 총 6명의 흑인 배우가 후보에 올라 무슬림 배우 마하설라 알리(‘문라이트’)와 비올라 데이비스(‘펜스’)가 남녀조연상을 받았다.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의 여러 부문에서 무슬림 수상자가 있었지만, 배우로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은 마하설라 알리가 처음이라고 AFP통신이 전했다. 또 흑인인 배리 켄진스 감독도 각색상과 작품상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장편 다큐멘터리 상은 ‘O.J. :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즈라 에델만 감독)가 받았다. 이 작품의 상영시간은 7시간 47분에 달해 역대 아카데미 수상작 가운데 상영시간이 가장 긴 영화로 기록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저스틴 팀배레이크를 비롯해 스티브, 존 레전드 등 톱 뮤지션들이 나와 축하공연을 펼쳤다.

연합뉴스



‘월계수...’ 배우 김영애

“현재 병원에서 안정 취하는 중”

체력적으로 힘들어 연장 출연 안해

KBS 2TV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마지막화에 등장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 배우 김영애가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소속사가 밝혔다.

김영애의 소속사 스타빌리지엔터테인먼트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영애 씨는 병원에서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있고 체력도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드라마에 50회 이후 출연을 하지 않은 건 처음부터 50회까지 출연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4회 연장이 논의되었을 때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본 회사와 방송사에서 연장된 4회는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지난 26일 54회로 막을 내렸다. 김영애는 극 중 월계수 양복점의 안주인 최곡자를 연기했다.

소속사는 “김영애와 관련된 기사 중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실은 기사나 배우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타이틀을 가진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자체 부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침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공사창립특집 2부작 백두산	00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재)	00 3.1절 특집 다큐멘터리 독도 DNA 55 텔레몬스터(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5 하숙집 딸들(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세상발전 유레카 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제53회 춘계 대학축구 연맹전	25 생생정보 스페셜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1대 100(재)	05 내꺼야 폭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2시, 뉴스브리핑
3	55 감성애니 하루 2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독? 독! 키즈스쿨 55 응가 쇼나타 2	00 영재발굴단(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라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1대 100	50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감성애니 하루 2	00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	00 월화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피고인>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하숙집 딸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강연 100℃ (재)	35 웹드라마 <그녀를 찾아줘>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삼국지 이릉대전)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웍스 08:00 덩동댕 유치원1~2 08:30 꼬마버스 타요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30 삼삼쌍쌍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우영불고기와 우영갈매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2:40 세상의 모든 법칙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책대로 한다 13:40 장수의 비밀 14:30 레이디비그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가 켓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시계마을 티키톡!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콩 16:45 덩동댕 유치원1~2(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너티너츠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아웃도여 용품 관리자>	20:50 세계테마기행 <천 가지 매력, 말레이시아 2부> 물라카 해협의 두 가지 보석 21:30 한국기행 <어서와라, 봄 2부> 기다렸다, 도다리썩국< 21:50 EBS 다큐프라임 <2017 시대탐구 청년>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EBS 스페셜 프로젝트 <책대로 한다>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한국영화특선 <왕실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8일(음 2월 3일 丙戌)			
子	48년생 궁리를 잘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반드시 붕패하게 되어 있다. 60년생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72년생 실수한다면 주변인에게까지 피해가 가리라. 84년생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 행운의 숫자 : 75, 52	午	42년생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이로우리라. 54년생 개선되는 위상이니라. 66년생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가려서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78년생 방심과 인간적인 배려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자. 90년생 성과가 천양지자이다. 행운의 숫자 : 88, 50
丑	49년생 운로가 순조로우니 원해오던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 61년생 해독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게 된다. 73년생 신숙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으나, 85년생 감시와 연결되는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29, 65	未	43년생 융통성이 요구된다. 55년생 적응하다 보면 극복할 수도 있다. 67년생 탄력이 불으면서 비약적 발전을 한다. 79년생 별문 제없이 순탄할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도 된다. 91년생 여러 사람과 얽혀서 복잡해지는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57, 89
寅	50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낭패를 보게 될 수밖에 없으니 진중하게 임하라. 62년생 지구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74년생 판세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함이 보인다. 86년생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 행운의 숫자 : 17, 06	申	44년생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56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약제가 보인다. 68년생 낯설고 힘들 것이니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느니라. 80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게 마련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4, 54
卯	51년생 바로 그것이 자신이 찾고 있던 바다다. 63년생 직접 나서지 않고 측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것도 괜찮다. 75년생 절만 수용한다면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87년생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0, 25	酉	45년생 큰일을 꾸무다거 눈앞의 현실을 망각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만 할 것이다. 57년생 윤곽이 잡히고 체계가 서게 되리라. 69년생 특별히 쟁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81년생 전반적인 점검을 해봐야 할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76, 63
辰	52년생 계획이 거대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64년생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76년생 과정에 충실하라. 88년생 자체 내에서 해결될 수도 있으나 미리 쟁겨 둘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2, 16	戌	46년생 성공이 눈앞에 와 있으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자. 58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70년생 객관적인 판단과 냉철한 시각이 절실한 때이다. 82년생 속고의 시간이 길수록 실속이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5, 66
巳	53년생 지혜를 모은다면 하늘도 도와 줄 것이다. 65년생 주장이나 의견을 속 시원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77년생 일시적이거나 위안이 될 것이다. 89년생 확실히 분간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1, 94	亥	47년생 늦을수록 불리하니 오늘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라. 59년생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푸는 기쁜 시간을 나누라. 71년생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아작은 활발하나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5, 1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